

마야 사회 계층구조 모델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

송 영 복

단독 / 경희대학교

Song, Young-Bok (2009), Un cuestionamiento sobre la estructura social de los mayas prehispánicos y su interpretación predominante.

Hasta el momento, varias investigaciones dicen que tanto los “nobles” como los “plebeyos” vivieron en diversos lugares de las zonas urbanas y rurales, habiendo una gran dicotomía en los niveles de espacio que ocupaban las viviendas de los diferentes estratos sociales. El espacio también se relaciona con las concentraciones del poder. En la actualidad el modelo: noble-rico-poder-concentrado en el centro de la ciudad, y plebeyo-pobre-no poder-concentrado en la periferia de la ciudad, es aun la visión dominante.

Sin embargo, las fuentes históricas nos revelan que el poder político, económico y social de los mayas surge desde las unidades familiares. Las familias extensas forman otros elementos políticos más grandes, bajo un sistema parecido a una alianza o confederación de estas unidades sociales básicas. Pero, a pesar de la formación de estos grandes conglomerados, el sistema de familia nunca perdió su lugar predominante en la sociedad Maya. Por lo tanto, reiteramos a la “familia” como el elemento esencial para la comprensión del mundo de la sociedad maya prehispánica. Todas las familias forman parte de agrupamientos mayores, en los cuales habían líderes elegidos entre quienes representaban los intereses de las familias. A pesar de la existencia de otras agrupaciones políticas de mayor dimensión (batabil, cuchcabal), ellas mantenían, los beneficios de sus componentes. Así que todas las familias tenían su importancia y no existía un grupo sociopolítico de mayor poder sobre los demás, que controlara estrictamente a los que estaban bajo su dominio. A su vez, el sentido de gobernar no estaba basado en la superioridad e inferioridad entre gobernantes y gobernados, sino que era una coordinación mutua para mantener a la comunidad en armonía. El poder político nace desde una relación parental, a través de cierto sistema de elección, y del papel

* 이 연구는 2008년도 경희대학교 교원연구년에 의한 결과임(KHU-20080034).

de los consejeros altamente desarrollados.

Teniendo estas posibilidades los ambientes académicos de los estudios Mayas repiten el modelo concéntrico. Esto sugiere algunas inquietudes. Primero en muchas ocasiones los fenómenos sociales requieren diferentes formas de interpretación para ampliar su comprensión. Ya que la existencia única de un sólo modelo tendría un estricto límite académico. Por otro lado, las situaciones del Posclásico tardío o el momento del contacto es la parte más importante para reconstruir las características de la Civilización de los Mayas. Sin embargo no tomar en cuenta la información de este período sería imprudente. Con la excepción de los períodos de apogeo del Clásico y Postclásico, los demás períodos no mantenían un poder concéntrico, así que el modelo que revisamos aquí, o sea el modelo desconcéntrico del Postclásico tardío, sería más familiar para entender la realidad socio-política de esos períodos. Si se toma en cuenta que este modelo desconcéntrico no es totalmente útil como un modelo fundamental para entender el mecanismo socio-político maya, aun sería valioso para comprender la función y el papel de la gente común.

Así es una tarea que se extiende de este modelo hasta los otros períodos de la civilización maya incluyendo la etapa del último desarrollo del Clásico y Postclásico con ciertas modificaciones.

[Mesoamérica / Maya / Estructura social / Gente común / Noble;
메소아메리카 / 마야 / 사회구조 / 평민 / 귀족]

I. 들어가는 글

이 연구는 기존 마야의 사회정치구조 이론에 대해 요약 소개하고 이에 대한 편중된 시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야의 사회정치구조가 중앙집중적이었다는 기존의 시각에 의문을 가지고 중앙집중적이 아니었다는 이론을 보다 큰 폭과 깊이로 전개하기 위한 시각의 하나이다.

사회정치구조에 대한 지배적 시각에 대한 설명 부분은 이미 기존의 논문 등을 통하여 정리된 것을 이곳에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 부분은 이러한 시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사회정

치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논문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당연히 사회정치구조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신분제도, 지도자들 권력의 성격, 경제구조, 의복, 식생활, 도자기, 주거 지역과 형태, 무덤과 부장품, 교육제도, 상업과 신분, 농업과 기타 산업, 전쟁 등 실로 수많은 주제와 소재들이 다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사회정치구조가 왜 문제가 있는지 위에서 든 것과 같은 주제와 소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발로서 큰 틀에서의 시각의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마야의 사회정치구조는 중앙집중적이 아니었다는 이론의 전체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필자를 중심으로 한 주장의 중요부분만을 일부 소개하는 정도이다. 사회정치구조가 중앙집중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몇몇의 식민지시대 사료를 인용한다. 당연히 지금까지 주장된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논문을 참고 하여야 한다(Song, 1995; 1998; 송영복, 1999a; 1999b). 오늘날까지 이러한 이론은 미약하나마 꾸준히 있어왔으며 여기에서는 이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앞으로 필자가 전개해 나갈 비중앙집중이론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존 이론이 지배하는 현실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마야에는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모델과 그와는 달리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모델이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히 정치구조에 대한 이해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시각,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 계층의식 존재 여부 등 실로 다양한 면에서 한 문화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 중에서 후자가 —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모델이 —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인다. 즉 마야는 중앙집중적인 권력과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이 예나 지금이나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론이 병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절대적인 지배현상을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이 논문의 배경적인 문제제기

가 시작되고 있다.

모든 사회는 아무리 그 사회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회정치 구조와 이에 대한 계층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왜 마야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점이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논의의 중심이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의 두 장에서는 마야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인 중앙집중이론에 대하여 그리고 후고전기 말기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비중앙집중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논의가 없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비중앙집중모델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현실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조망해 본다.

II. 기존이론

1. 중앙집중이론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설은 마야사회는 엄격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력이 집중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엄격한 사회계층분화는 정치적인 권력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의 저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야를 다룬 역사책들은 엄격한 검증과정 없이 이들의 중앙집중식 사회계층구조에 대하여 고전적인 저서들을 인용하면서 비판 없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계층을 구분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할라치 우이닉(Halach Uinic)과 같은 왕이 존재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에 왕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고위 행정관료가 있었다는 시각이 거의 변동불가의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마야지역뿐만 아니라 중미, 그 외곽지역과도 빈번하였던 장거리교역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들이 점차 상류계급으로 진

입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개의 상류계급 아래에 평민들이 위치하고, 다시 그 아래에 노예를 포함한 하층계급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 물론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 정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계급들은 경제력과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형성, 유지된다고 하는 생각 또한 일반적이다.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간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략적으로 한 고대도시의 중앙신전지역을 발굴하여 그곳에서 가치 있는 유물이 많이 나오고 밀집된 대단위 건축물들이 나타나면 그곳을 상류계급의 주거지역으로 생각하였고, 다른 지역을 발굴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유물들이 나오는 한편, 건축물의 질과 밀집도가 낮다면 거기에는 하층민들이 살았다고 말하여 왔다. 즉 삶의 질에 있어서 상류계급은 도시의 중앙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린 반면, 대부분의 일반 평민들은 도시의 외곽에서 생산 노동에 종사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근거들은 다양한 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Vargas, 1995: 167; Acevedo, 1993: 84; Smith, 1962: 21-47; Carmack, 1976: 25; Leventhal, 1988: 69; Kintz, 1978: 66, 99, 263). 이러한 견해는 같은 도시 안에서 지역에 따른 물질적 부(富)의 불균형이 사회 계층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앙집중적인 사회정치 모델의 근간을 보여준다.

고고학적인 오늘날의 연구와 더불어 사료에서도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권력과 문화구조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마야의 대표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는 란다(Landa, 1986: 28)와 꼬골유도(Cogolludo, 1842: 328)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료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발견된다.

고고학 분야나 역사 사료의 증언과 함께 오늘날 연구의 결과들도 마야 사회가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야의 사회정치구조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이스(Roys, 1992), 칼막(Carmack, 1979), 빌야 로하스(Villa Rojas, 1985: 30)의 연구들이 그러하고, 최근의 연구들

로는 관련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이 논문의 III-1에서 열거하고 있는 저술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렇게 고고학과 사료연구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마야의 엄격히 세분화된 사회계급체제를 설명했고, 중앙집중적인 권력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지배적인 주장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의 중심지에 장엄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귀족과 제사장들이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며, 평민이나 노예들과 같이 사회적 중요성이 적은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라 도시의 외곽지대에 살면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이것이 마야의 사회계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어있다. 엘리트의 역할이 마야 문명 발전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2. 비중앙집중이론

마야 사회의 권력과 사회구조가 비중앙집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주장 역시 고고학적인 자료와 사료 등에 대한 해석과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앙집중적인 권력에 종속하는 구조가 아닌 반독립적 대가족 중심의 촌락구조가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한편(Benavides, 1995: 115-122), 도시 형태와 촌락의 구조 등에서 비중앙집중적인 사회정치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다양하게 관찰된다(Chase, 1985: 366-376; Scanborough, 1991: 175; Arnaldo, 1992: 50; Rubio, 1980: 393; Lohse, 2004: 136-137; Terry, 2004: 67). 즉,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도시의 중심과 외곽 혹은 중심과 부심과의 관계에서, 도시의 중심에서만 발달한 생활을 하였다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 중심과 외곽에서 — 유사한 생활수준을 보였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사료에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으

로 언급되고 있다. 유카탄반도의 꾸츠테엘(Cuchteel)은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반독립적 단위를 형성하는 공동체로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중앙집중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반독자적인 성격을 이어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꾸츠테엘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단위들의 모임으로 가족대표를 통해 정치참여를 한다.
- 독자적인 마을의 이름을 가지며, 가족 중심적 농업을 행하는 자체토지를 경작한다(토지는 공동소유이며, 각 경제활동단위들이 경작권을 행사한다).
- 행정과 군사유지를 담당한다.
-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한 자립적 경제활동을 한다(Quezada, 1993: 31-36).

독립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꾸츠테엘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동맹의 형태인 바따빌(Batabil: 꾸츠테엘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단위)이나 꾸츠까발(Cuchcabal: 꾸츠테엘과 바따빌 그리고 바따빌들로 이루어지는 연방체적 부족공동체의 형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을 구성한다. 이는 꾸츠테엘에 비하여 상위의 단체로서 꾸츠테엘들의 연합의 성격을 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상위정치단위들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바따빌과 꾸츠까발은 꾸츠테엘의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대적인 성격의 대행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꾸츠테엘이고, 꾸츠테엘의 공동의 필요에 의하여 더 큰 정치단위들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상위정치단위들은 꾸츠테엘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마야 정치사회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꾸츠테엘과 바따빌 그리고 꾸츠까발의 구성방식과 그 권력관계는 히메네스에 의하여 정확하게

지적되었다.

이곳 인디오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의 형태는 한 왕조에 한 명의 최고왕이 있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왕좌는 —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 그들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화려했고, 또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 최고왕은 24명의 높은 촌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작은 일 이건 큰일이건 간에 이들과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들은 다시 다른 조직으로 세분화 된다. 이 (24개 나라의) 높은 촌장들은 다시 각각의 마을 촌장들과 상의를 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절대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떤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4개국의 높은 촌장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대표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한 후 만장일치에 의하여 결정을 했다.

El gobierno que tenía era éste; había un Rey Supremo del Reino que se sucedió de padres a hijos, como está dicho, y aunque no era tan absoluto, se le guardaba tanto decoro y respeto que lo tenían casi por deidad. Este tenía los 24 Señores que se han dicho que eran los grandes del reino, con estos consultaba y confería todas las cosas, chicas o grandes y con el parecer de la mayor parte se ejecutaba. Estos veinticuatro Señores como tenían repartidos en sí todo el Reino cada uno era Señor de una parte de él a quien conocían como a tal todos los pueblos de su distrito. A estos acudían todos los Señores de cada pueblo que cada uno tenía su Cacique y este era como cabeza de aquel pueblo; pero no era tan absoluto que para todo lo que se había de hacer y ordenar, según los Señores grandes mandaban, lo pudiesen ejecutar por sí sino que éste juntaba las cabezas de las familias a quienes daba cuenta de todo y con acuerdo de todos se ejecutaba(Ximénez, 1975: 104).

이상의 부분은 마야의 비중앙집중적인 정치, 사회 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본 연구자의 저술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Song, 1995; 1998; 송영복, 1999a; 1999b).

III. 문제제기

1. 오늘날 마야 학계에서의 일방적 이론의 과잉 지배현상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양 학술 서적의 대부분은 마야의 중앙집중적인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하여 거의 의심 없이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이에 반하는 의견이나 모델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던 현실의 결과물이다. 물론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는 학계 주류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늘날 일반과 학계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극한적이다. 마야 문명 일반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적인 도서를 포함한 저명한 저서들의 의견이 거의 동일한 정치권력의 집중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직적인 사회관계를 설명하며, 역시 재화의 집중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야 문명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과 같은 나라에서만 아니라 마야연구에 가장 많은 인적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 온 유럽 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학계가 일단 양적인 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만들어진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술 분야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고전적인 저술과 최근까지 계속해서 개정 증보되는 책들에서 기존의 모델과 시각은 거듭 확인된다. 코우(Coe, 1990), 톰슨(Thompson, 1985), 몰리(Morley, 1991), 쉘리(Shilley, 1990) 등의 저술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멕시코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사라는 점에서 최근 두드러진 학술적 투자를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절대적인 재원과 인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미국에 비하여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역시 시각이나 모델 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루스(Ruz, 1992)의 저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술들은 대표적인 개괄서들인데 개별적인 연구결과들을 총정리한 것으로 세부적인 연구 결과들의 종합이라는 점에서 학계 전반의 분위기와 주류의 양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고대 마야 도시의 중앙 신전구역만을 발굴하고 연구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 바꾸어 주변지역에까지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일반 평민에 대한 관심도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서 여겨진다. 로스(Lohse, 2004)의 저술 등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한계는 역시 새로운 모델이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색다른 관찰을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이제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기존의 모델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에 멈추고 있다. 즉, 기존의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 혹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모순점이나 문제점 등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겠는가라는 관점에 그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재화를 통제하고 신분상의 상하구조 속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왕과 귀족집단이 마야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창조와 유지 등에 가장 큰 결정권자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면에서 마야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의 상호관계 모델을 다시 한 번 검토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즉, 비중앙집중모델과 같은 것이 없는 한 이러한 작업들은 비록 투자를 증대하고 영역을 넓히더라도 그 학술적인 의의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2. 사회 현상을 보는 시각은 단일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계층사회인가? 미국사회는 중앙집중적인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는가? 그 전체의 힘과 일반 국민들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이러한 사회들을 철저한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나?

만일 이러한 의견의 일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계층 정도는 존재하지만 누구나 상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민도 권력과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이를 쉽게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대 그리스는 어땠으며, 로마는 어떠하였고, 고구려는 이런 점에서 어떤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결코 완전히 정리될 수 없는 많은 용어와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기 힘들다. 비록 용어와 개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현상을 바라보는 다른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가 있기 힘들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하여 위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하여 마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료가 충분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욱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그나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한 가지 사회구조 모델만이 존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의 한국사회, 미국사회와 같이 모든 자료와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야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절대적인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재화와 결정권을 독점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계층분화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주장만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한 주장 이외의 다른 시각과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유일한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은 마야 사회를 다각적으로 분석 이해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야 사회가 중앙집중적인 사회구조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그 근거와 내용에서의 사실 관계를 초월하여 — 즉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 어떠한 식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논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집중적인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반하는 요소도 한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사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이 그들의 힘을 아무런 저항 없이 누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야사회의 역학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도 비중앙집중적으로 바라본 사회모델이 분명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마야의 개괄서에서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술 논쟁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형적인 현상이며 긍정적일 수 없다.

3. 후고전기 말기의 정치사회현상을 전체 마야문명의 정치사회모델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후고전기 특히 후고전기 말기 마야의 사회정치구조는 고전기의 그것과 얼마나 많이 달랐을까? 당연히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로 볼 때 후고전기 말기, 그러니까 에스빠냐 침략자들이 들어왔을 당시의 마야 사회는 서양에 영향을 받지 않은, 혹은 가장 적게 받은 정복이전 마야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 된다. 즉 후고전기와 고전기 마야의 전성기 사이에는 6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후고전기의 정복기에 에스빠냐 사람들에게 의하여 기록된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왜곡과 과장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이 시대의 정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고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고고학 분야의 발전도 괄목할 만하지만 고고학적인 정보를 통해 시도 될 수 있는 해석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료들이 역사적인 자료와 공동으로 연구될 때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한편 마야문자학(Maya Hieroglyphy)의 발전도 괄목할만하다. 특히 고전기와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마야문자의 이해는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와 차후의 마야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이 있기 힘들다. 그러나 해독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시 그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식민지시대의 사료와 민속학 등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식민지시대 특히 식민지 초기의 사료들이 주는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마야 문명이 가진 성격과 특징을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마야 정치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주된 논의에서 그저 장식 정도로만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장식 정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료가 주가 되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이나 마야문자학의 해석을 보조하거나 재확인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후고전기 말기의 정치경제 구조를 재구성하고 그 구성을 다시 고전기나 다른 역사시기에 변용하여 검토하고 비판을 통해 적용하는 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보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많고 높은데도 말이다.

오늘날의 마야사회를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류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들이 고대 마야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부분 이용되고 있다. 그들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500년 전 에스빠냐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마야 공동체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것은 더욱 가능하다. 물론 이들이 50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문화에 비하여 5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과 정서를 상당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학의 연구 결과물들이 역사와 고고학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욱 근접한 자료이자 상대적으로 충실한 자료인 정복기의 자료가 무시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정보의 왜곡과 과장, 축소 등으로 인하여 사료비판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간과되는 것은 학술적 논의의 중요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4. 마야 전 역사시대를 통해 비중앙집중적인 사회정치형태가 절대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한편 마야사회가 외형적으로 중앙집중적인 정치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

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들의 그러한 대단위 권력을 토목과 건축 또는 각종 예술품 제작과 같은 가시적인 것으로 다량 표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유물, 유적을 남기는 시기는 마야 전체의 역사 시대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길지 않다. 고전기의 전성기와 후고전기의 전성기를 모두 합쳐서 500년을 넘기기 힘들다. 기원후 500-900년 간의 기간인 고전기의 300-400년과 후고전기의 기원후 1350-1450년 정도의 100여 년 정도가 최대한이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고전기의 높은 발전 정도를 보이는 시기¹⁾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비록 그러한 시기의 일부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해도 전체적인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이러한 논의의 핵심을 움직일 정도는 되지 못한다.

마야의 선사시대(Arcaico)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문명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기원전 2000년 전고전기(Preclásico)부터 계산을 해서 에스빠냐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원후 1500년까지를 마야문명의 시기로 보면 위에서 이야기한 500년은 전체 기간 중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결국 대략적으로 3500년의 마야 역사 기간 중에서 중앙집중적인 형태를 보인 기간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15%가 채 안되고 나머지 기간은 정치적 중심점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시기로서 후고전기 말기의 사회정치 구조와 상당히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이 시기는 전고전기와 고전기 초기, 고전기 쇠퇴 이후부터 후고전기 융성기 이전시기, 후고전기 쇠퇴 이후부터 에스빠냐 정복자들의 침입이전 시기 등이 된다.

한편 500여 년 간의 중앙집권체제가 극을 이루었던 기간에도 마야 전체의 영역에 7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각기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존재했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독립관계, 반독립관계 혹은 종속관계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논

1) 엘미라도르(El Mirador), 리오아술(Río Azul), 산바르톨로(San Bartolo) 등의 도시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엘미라도르(El Mirador)에서는 마야문명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고, 산바르톨로(San Bartolo)에서는 전고전기 시대에 이미 발달한 마야문자와 예술, 종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규모의 벽화가 발견되었다.

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국가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야의 전성기에도 후고전기 말기의 모델이 상당부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어떤 시기에도 마야 전체가 하나 혹은 소수의 중앙집권정치체제 하에 놓였던 적은 없다. 최고의 중앙집권적인 양상을 보였을 때에도 70여 개 정도로 추정되는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비중앙집권 시기에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했던 정치단위는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숫자가 많고 구분자체가 힘들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분권화된 작은 도시 혹은 촌락 국가 형태를 보이면서 중앙 집중적인 권력과 사회 형태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시기가 마야전체 역사의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야문명의 일반적인 정치, 사회구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앙집중적인 고전기의 모델을 주로 삼아 서양고대사의 절대 권력을 가진 정치, 사회, 경제모델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엘리트와 왕의 권력 그리고 부(富)의 집중, 철저한 사회 계층화, 엘리트 예술이 마야 문명 서술의 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시기, 일부 지역의 현상으로서 일반화하기 힘들다. 마야 사회가 유지되었던 전체 기간 중에 마야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모습은,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분권을 통해 작은 정치단위들이 주가 되었던 — 이미 앞에서 설명한 비중앙집중이론의 전형이 되고 있는 후고전기 말기의 모습에 더욱 가까울 수 있다.

고전기 융성기의 사회정치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후고전기 말기의 반중앙집중적인 사회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기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유사성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사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고전기의 분석에도 가장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설명한 후고전기 말기의 모델을 마야 전체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

다. 물론 비중앙집중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정치구조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후고전기 말기의 사회정치모델을 적극적으로 마야 전체 사회정치모델에 적용하여 마야문명의 일반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비중앙집중이론은 최소한 마야의 평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비중앙집중모델의 존재와 그 논의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 마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한 사회나 국가를 민주적이라고 가정하고 민주적인 요소만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적인 부분 즉 민주적인 면과 관련된 요소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같은 사회를 비민주적이라고 가정하고 그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조망하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와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

사회정치구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앙집중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엘리트의 역할과 그들의 기능 등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가 일반 평민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라고 가정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와 정치, 경제 등의 면을 관찰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적인 요소, 일반평민들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양쪽의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 수 있는 토론이 가능하고 그를 통한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회의 사회정치 모델들이 비로소 실험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마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높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훌륭한 예술품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 등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에 대한 경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정치구조 모델을 가지고 본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소수 엘리트의 생각과 결정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결정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식 이상의 형태를 보이기 힘들다. 때론 그들도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엘리트가 주가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엘리트에 부속되고 종속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다중’의 의미로 한계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비중앙집중적인 모델을 통하여 마야사회를 본다면 다양한 정보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조망되어질 수 있다. 즉 평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정치, 경제,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검증하게 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역할과 기능 등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야사회는 절대적으로 엘리트가 중심이 되었던 사회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다고 하더라도 비중앙집중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일반 평민들이 그러한 체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되었는지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엘리트 중심으로 발달된 의사결정과 명령방식을 이해하는 한편 그러한 것을 평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구조 등의 다양한 면을 우리는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두 가지 모델은 충분히 양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마야 사회는 비중앙집중적인 요소가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무시 방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만 보더라도 마야사회가 중앙집중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식민지 초기의 수많은 증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체계화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IV. 나가는 글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마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앙집중이론과 비중앙집중이론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소개하였다. 비중앙집중이론이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마야 연구와 관련된 학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중앙집중모델이 과잉 지배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야 문명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교양, 학술 서적에서는 중앙집중적인 사회정치 모델이 지배를 한다.

이 논문은 사회 현상을 보는 시각은 단일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과연 민주적인 사회인가 아닌가? 혹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뚜렷한 사회 계급구조를 가진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등의 논의에 한쪽의 결론이 쉽게 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의 일이고 사료가 부족하여 그 현실을 알기 힘들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 사회가 일방적으로 엄격한 수직적인 계층 사회를 배경으로 중앙집중화된 정치권력과 경제적인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기존의 모델은 다양한 다른 모델과 같이 공존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후고전기 말기의 정치사회 현상을 마야역사의 전반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마야 문명에 대하여 가장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고전기 말기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정복기와 식민지 시대의 사료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마야 문명의 현실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결정적인 손실이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야 전 역사시대를 통해 중앙집중적인 사회는 고전기와 후고전기의 전성기 기간으로 한정된다. 시간적으로도 전체와 비교하여 15% 미만의 기간 동안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모델이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기간에는 — 전고전기와 고전기 초기, 고전기 쇠퇴 이후 후고전기 융성기 이전 시기, 후고전기 쇠퇴 이후 에스빠냐 정복자들의 침입이전 시기 등 — 중앙집중적인 권력체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은 비중앙집중적인 사회정치형태가 지속되었을 것을 추정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다. 그런데도 중앙집중모델만이 마야 전체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유일한 모델로 제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사회인식의 면에서 본다면 비중앙집중이론과 그 모델이 마야의 정치, 사회, 경제 역학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마야의 평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중’이 가지는 마야 문명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다양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마야 사회를 위에서 아래로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관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는 결국 한 사회를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중앙집중모델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야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식민시시대 초기의 사료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먼저 후고전기 말기나 고전기 쇠퇴 이후와 같은 가깝고도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비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어떠한 비판 과정을 통해 변화시켜 고전기 등의 사회정치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도 아울러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영복. 1999. 「고대마야 사회, 정치 제도 속에서 대가족 체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라틴아메리카연구』, 12(1): 173-204.
- _____. 1999. 「고대마야 사회의 공동(共同) 재정(財政) 운용에 나타난 정치 경제적 특징 — 빠탄(Patan)의 성격과 특징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5(2): 197-235.
- Acevedo A., Renaldo y Paz Bone, Ana María de la Luz. 1993. “El patrón de asentamiento de Uaxactún durante el clásico tardío”, *Cuaderno de arquitectura mesoamericana*, 23(enero), Facultad de Arquitectura, UNAM.
- Arnauld, Marie Charlotte. 1992. “Los territorios políticos de las cuencas de Salamá, Rabinal y Cubulco en el Postclásico”, Coordinado por Alain Breton, *Representación del espacio político en las Tierras Altas de Guatemala 2*, México y Guatemala, Centro América: Centro de Estudios Mexicanos y Centroamericanos, Cuaderno de Estudios Guatemaltecos.
- Benavides Castillo, Antonio. 1995. “El sur y el centro de la zona maya en el Clásico”, Coordinados por Linda Manzanilla y Leonardo López Luján, *Historia antigua de México, El horizonte Clásico*, volumen II, México: INAH, UNAM, Miguel Angel Porrua.
- Carmack, Robert. 1976. “La estratificación quicheana prehispánica”, en Eds. Pedro Carrasco y Johanna Broda. *Estratificación social en la Mesoamérica Prehispánica*. México: SEP - INAH.
- _____. 1979. *Historia social de los Quiches*, Guatemala, Centro America: Editorial “José de Piñeda Ibarra” Ministerio de Educación de Guatemala.
- Chase, Diane Z.. 1985.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Land of Cacao and Honey: Correlating the Archaeology and Ethnohistory of the Posclassic Lowland Maya”, Edición de Jeremy A. Sabloff y E. Wyllys Andrews V., *Late Lowland Maya Civilization*, Albuquerque: A School of American Research book.
- Coe, Michael D.. 1990. *Los mayas*, México: Diana.

- Cogolludo, Diego López. 1842. *Los tres siglos de la dominación española en Yucatán, o sea Historia de esta provincia desde la conquista hasta la independencia*, México: Impreso por José Maria Peralla.
- Kintz, Ellen Rose. 1978. "The Social Organization of a Classic Maya City Cobá, Quintana Roo, México", Thesis of Ph. D. in Antropol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 Landa, Fray Diego de. 1986. *Relaciones de las cosas Yucatán*. Introducción por Angel M. Garibay K., México: Porrúa(Biblioteca Porrúa 13).
- Las Casas, Bartolomé de. 1967. *Apologética historia sumaria, cuanto a las cualidades, dispusición, descripción, cielo y suelo destas tierras, y condiciones naturales, policias, repúblicas, manera de vivire costumbres de las gentes desta sin días occidentales y meridionales cuyo imperio soberano pertenece a los reyes de castilla*. Edición preparada por Edmundo O' Gorman, 2 tomos, México: UNAM, IIH. (Serie de historiadores y cronistas de Indias: 1).
- Lenkendorf, Carlos. 1996. *Los hombres verdaderos*, México: Siglo XXI.
- Leventhal, Richard M. y Baxter, Kevin H.. 1988. "The use of Ceramic to Identify the Function of Copan Structures", *House Hold and Community in the Mesoamerican Past*.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Lohse, Jon C.. 2004. "Intra-Site Settlement Signatures and Implications for Late Classic Maya Commoner Organization at Dos Hombres, Belize", in Edited by Jon C. Lohse and Fred Valdez, Jr., *Ancient Maya Commoners*,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Morley, Sylvanus G.. 1991. *La civilización Maya*, México: F.C.E.
- Quezada, Sergio. 1993. *Pueblos y caciques yucatecos 1550-1580*,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Rivera Dorado, Miguel. 1995. "Las tierras bajas de la zona maya en el Posclásico", Coordinados por Linda Manzanilla y Leonardo López Luján, *Historia antigua de México, volumen III: El horizonte Posclásico y algunos aspectos intelectuales de las culturas mesoamericanas*, México: INAH, UNAM, Miguel Angel Porrúa.

- Roys, Ralph L. 1992. *The Indian Back Ground of Colonial Yucatá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Rubio, Alfredo Barrera.. 1980. "Patron de asentamiento en el área de Uxumal, Yucatán", en *XVI Mesa redonda de sociedad mexicana de antropología*, tomo II, México: Saltillo Coahuila.
- Scanborough, Vernon L.. 1991. *Arqueology at Cerros, Belize, Central America*,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 Smith A. L.. 1962. *Residential and Associate Structures at Mayapán*, Washington: Carnegie Inst.
- Song, Young Bok. 1994. "La esclavitud y servidumbre entre los mayas prehispánicos", Tesis de Maestría, UNAM.
- _____. 1998. "*La dinámica de la sociedad maya: La función del sistema de la familia en la organización social maya del Posclásico*", Tesis de Doctorado, UNAM.
- Terry G., Powis. 2004. "The role of Pottery and food Consumption among Late Preclasic Maya Commoners at Lamanai, Belize", in Edited by Jon C. Lohse and Fred Valdez, Jr., *Ancient Maya Commoners*,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Thompson, J. Eric S.. 1985. *Grandeza y decadencia de los Mayas*, México: F.C.E..
- Vargas P., Ernesto. 1995. "El ahauna o casa real en Tulum", en Compilado por Ernesto Vargas P., *Seis ensayos sobre antiguos patrones de asentamiento en el área maya*, México: UNAM, IIA.
- Villa Rojas, Alfonso. 1985. *Estudios etnológicos, los mayas*. México: UNAM, IIA(Serie Antropológica: 38).
- Vogt, Evon Z.. 1961. "Some Aspects of Zinacantan Settlement Patterns and Ceremonial Organization", en *Estudios de Cultura Maya*, Vol. 1, México: 131-146.
- _____. 1964. "The Gentic Model and Maya Cultural Development", en E. Z. Vogt y A. Ruz L., *Desarrollo cultural de los Mayas*, México: De.

Ximénez, Fray Francisco. 1985. *Primera parte del tesoro de las lenguas Cakchiquel, Quiché y Zutuhil, en que las dichas lenguas se traducen a la nuestra, española*, Guatemala, Centro América: Academia de Geografía e Historia de Guatemala.

_____. 1975. *Historia de la provincia de San Vicente de Chiapas y Guatemala, Biblioteca "Goathemala", Guatemala, Vols. I - III*, en Acuña René, *Introducción al estudio del Rabinal Achi*, Cuaderno 12, México: UNAM, IIFL, CEM.

송 영 복

주소: 경기도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520호

E-Mail: songyb@khu.ac.kr

-
- 논문접수일: 2009년 10월 1일
 - 심사완료일: 2009년 10월 20일
 -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2일